



## KEPCO의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진 용 규  
한국전력공사 홍보실 차장

지난 8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 전력 로비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평소 내방객 안내 업무 등으로 무척 조용한 곳이라는 인식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는 이랬다. 진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한전의 초청으로 1박 2

일 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한전 본사를 방문했기 때문이란다. 김쌍수 사장은 어린이들에게 “나에게도 비슷한 또래의 손주가 있어 남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되세요! 오케이!”라는 멘트를 보내자, 어린이들도 “오케이!”라

고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생애 최초의 서울 나들이를 한 진도지역 어린이들은

이외에도 김쌍수 사장은 강남구에 위치한 물댄동산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 도서 지원, 생



진도 임회마을 어린이 초청

전기박물관 견학, 한전아트센터 공연 관람, 서울랜드  
관람 등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면서  
양 손에는 푸짐한 선물을 가득 들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일파티 등 어린이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  
합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 5월 『한  
전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다.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

〈연령별 현황〉



〈소득 계층별 현황〉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2009년)

량’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김쌍수 사장은 “앞으로 한전 사회봉사단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KEPCO는 전국에 소재한 사업소와 267개 지역아동센터간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락 등 무료급식 지원, 학습지원, 학습교재 및 기자재 제공, 노후 전기설비 개선, 전력설비 견학과 문화체험 등 지역아동센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 단순한 물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전 봉사단원과의 멘토링을 통해 삶의 동반자로서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가족과 같이 지냄으로써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올 하반기에만 3,900여명의 KEPCO 직원들이 참여하여 약 6억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활동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KEPCO는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의 실업계 고등학교(목포공고)와 자매결연

(2006년)을 맺어 매년 장학금과 교육 기자재를 기증하였고,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전력시설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전기공학 전공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2005년 이후, 224명)하여 국가의 중장기 우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KEPCO의 업종을 잘 반영한 활동으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전기과학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소중한 자원인 전기에너지의 원리와 올바른 전기 사용법을 알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이 캠프를 통해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축구로봇을 직접 만들어보고, 자전거로 전력을 생산해 영화를 보는 등의 체험학습을 통해 전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고 친환경에너지와 소중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전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된 ‘사랑의 에너지 사업’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제한된 저소득 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불편 없이 지내도록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000여 가구에 13억 4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희망의 빛을 밝혀 주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아찾기 및 미아예방 캠페인을 전개, 전기요금 청구서에 미아사진 380명(1999년~, 매월 3명 게재)을 게재하여 현재까지 106명(1999년~)의 미아들이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하였다.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의 한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빨간모자 꼭꼭이 막대 인형극’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120회 공연을 통하여 25,644명의 어린이가 관람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부를 문화소외계층에 무료 제공하는 ‘객석기부제’를 시행하여 230회 4,570명에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전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전기박물관’과 ‘한전프라자’는 공연장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복지시설 방문



미야예방 인형극

‘경영진과 노조간부 합동 봉사활동’, ‘승진자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여 최고 경영층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사랑을 펼쳐 왔다.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경영진, 본사 처(실)장, 전력노조 간부 등 90여명이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신망재활원’에서 목욕·청소·털발정리·공연나눔·말벗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인 ‘한전아트센터’를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준 것은 물론 타 공연장의 70% 수준의 대관료로 공연단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문화예술계에 참신하고 획기적인 공연장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고, 객석

의 활력소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전기박물관’은 전기에너지의 역사와 전기놀이 등 다양한 교육시설 등을 보유하여 젊은 층과 어린이들에게 전기 체험을 위한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1994년부터 운영되어 온 ‘한전프라자’는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및 상설 미술 전시공간 무료 제공 등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인 ‘희망·사랑 나눔콘서트’를 97회(2005년~) 개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연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하여 문화소외지역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전음악콩쿠르’ (1991년~, 매년 1회)를 개최하여 우수 신인 음악인들의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또한 ‘천사관람제’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 18,161명(2006년~)에게 무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각종 합창대회 등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KEPCO합창단(직원 40여명으로 구성)은 주말 소외계층 합창봉사인 ‘사랑의 하모니 음악회’를 시행하여 회사의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김쌍수 사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며, 나눔경영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Great Company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 사회봉사단(270개, 16,000여명)은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수준높은 봉사활동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한전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더 기대된다. KEA

